

《계간여론조사》에 실린 논문들의 성격과 경향
A Trend Review of *Public Opinion Quarterly* in the 1990s

구자숙 · 김은미 · 이현희¹⁾

Koo, Jasook · Kim, Eunmee · Lee, Hyun-Hee

요 약

이 글은 《조사연구》에 기고할 저자들에게 논문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조사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계간조사연구》에 실린 논문들의 성격과 경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1년, 1995년, 2000년에 발간된 논문 총 83편을 내용별로 파악하고 분석방법 및 활용 자료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들이 우리 사회의 조사연구에 주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some guidelines for the articles to be published in *Survey Research*. For that purpose, we review th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Public Opinion Quarterly* in 1991, 1995, and 2000,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analytical methods and data used in these researches. Articles in *Public Opinion Quarterly* have some implications to the Korean survey research community in such a way that the types of researches to improve survey qualities and meta analyses of previously conducted survey researches seem to be the most useful and necessary at present.

I. 머리말

이 글은 《조사연구》에 기고할 저자들에게 논문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계간여론조사(*Public Opinion Quarterly*)》에 실린 논문들의 성격과 경향을 살펴보았다. 《계간여론조사》는 미국여론조사연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의 공식 학술지이다. 미국여론조사연구협회는 1947년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책임자였던 Harry H. Field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Paul F. Lazarsfeld, Herbert H. Hyman, Samuel A. Stouffer, Elmo Roper, Clyde W. Hart, Angus Campbell, George

1) 구자숙(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 전문위원, 심리학 박사, jasook@samsung.co.kr), 김은미(국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학 박사, eunmee@kmu.kookmin.ac.kr), 이현희(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 전문위원, 사회학 박사, hyunhlee@samsung.co.kr). 《계간조사연구》 1991년 판은 이현희 박사가, 1995년 판은 구자숙 박사가, 2000년 판은 김은미 교수가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저자들의 기여도가 같아 가나다순으로 이름을 기입하였다.

H. Gallup, Harold D. Lasswell 등 7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기구이다. 이 협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좀 더 나은 사회 형성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에서 여론조사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을 선도하고 실제 여론조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했다(AAPOR, 1999).

《계간여론조사》는 1937년에 창간되어 1948년에 AAPOR의 공식 학술지가 되었다(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창간이래 《계간여론조사》는 줄 곳 조사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이론의 측면에서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조사연구에 관한 이론과 이론검증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조사방법의 타당성, 질문지 작성, 면접법, 표집방법, 조사관리, 자료분석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수록했다. 또한 다루는 주제의 범위는 선거, 사회의식, 정치적 포용, 학살, 공공정책, 인종차별, 성차별 등 매우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계간여론조사》가 조사연구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된 배경에는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정치학, 경영학, 교육학, 행정학, 가정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참여가 있다. 한 학문에서 개발된 이론과 방법론이 다른 학문에 전파됨으로써 조사 관련 이론과 방법론 발전에 상승효과(synergy effect)가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서 학문 전반에 걸쳐 조사 관련 이론 및 방법론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계간여론조사》는 지난 65년 동안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유지해 오면서 조사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정착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계간여론조사》에 실린 연구논문들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조사연구》에 기고할 저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논문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계간여론조사》에 실린 글들을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과 활용 자료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의 경향이 중요하다고 보아 1990년대에 초점을 맞추어 1991년, 1995년, 2000년에 발간된 글들을 바탕으로 《계간여론조사》의 성격과 경향을 다루었다.

II. 내용별 특성

1. 1991년

1991년 《계간여론조사》에는 모두 32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정치·선거여론조사 및 사회적 쟁점 등 일반적인 주제를 다룬 여론조사에 관한 논문과 조사방법론에 관한 논문으로 나눌 수 있다. 발표된 논문 가운데 일반적 주제를 다룬 논문은 19편(59.4%), 조사방법론에 관한 논문이 13편(40.6%)이었다(<표 1>). 일반적 주제를 다룬 논문 가운데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논문이 12편이고, 사회적 쟁점 관련 논문이 7편(21.9%)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미국의 정치 영역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내용별 분류 - 1991년 《계간조사연구》

구분	내용	편수
일반적 주제	선거관련	6
	정치의식 및 태도	6
	사회적 쟁점	7
	소계	19
조사방법론	질문지 관련	5
	응답범주, 척도구성 관련	3
	전화조사 및 우편조사 관련	3
	기타 방법론적 쟁점	2
	소계	13
총 논문 편수		32

정치 관련 연구논문 12편 가운데 선거 관련 논문이 6편이며, 국민의 정치태도 및 정당지지도 관련 논문이 6편이었다. 선거 관련 논문 중에는 사전선거조사(preelection poll)에 관한 논문이 4편으로 사전선거조사의 예측력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1990년 니카라과(Nicaragua) 사전선거조사와 선거 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분석, 인종에 따른 사전선거조사의 응답성향 차이 분석, 응답자의 실제 투표참가여부에 대한 이해, 1989년 버지니아 사전조사에서 무응답자가 실제 투표결과에 미친 영향 분석이었다. 이 밖의 선거 관련 논문은 1988년 캐나다 지방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캐나다화폐의 등락에 미친 파급효과 분석이 있었으며, 대통령선거 유세 정보가 개인에게 전달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논문이 있었다.

선거 이외의 정치영역에 관한 논문으로는 소련에 대한 미국국민의 정치태도의 변화, 미국의 가족구조(결혼관)의 변화가 정당선호에 미치는 영향, 1952년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정당지지도의 변화조사, 정당지지도와 연령의 관계를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주로 수십 년에 걸친 시계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정치태도와 정당지지도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NORC나 Gallup 등의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이들 조사에 대한 지속적 자료축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조사연구논문도 다수가 실렸다. 이들은 신세대의 개인주의·물질주의적 가치관 변화, 포르노그래피, 에이즈캠페인, 개인적 이해와 흡연규제를 둘러싼 쟁점, 환경보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대체로 미국 사회에서 1980년대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계간여론조사》가 시사성이 강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경험적 연구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계간여론조사》는 조사기법향상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조사방법에 관한 논문은 질문지, 응답범주, 척도와 같은 구체적인 조사도구 개발에 관한 논문이 8편, 조사기법에 관한 논문이 3편, 기존 조사의 방법론적 문제를 검토한 논

문이 2편으로 조사도구에 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질문과 전반적인 질문의 순서와 배열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 3편, 집단별 응답 범주에 대한 해석 차이를 분석한 논문 1편, 숫자척도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1편이 발표되어 조사에서 응답자가 문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55권 3호에 발표된 셰이퍼(Schaeffer)의 논문은 연령, 교육, 인종 등 사회집단별로 응답의 해석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주”와 “매우 자주”와 같은 상대적 빈도에 대한 해석이 이들 집단에 따라 달라 응답을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조사도구에 관한 연구들은 응답척도와 범주 설정, 질문지 구성, 문항 구성 등 실제 조사 설계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조사기법에 관한 논문으로는 여론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편조사와 전화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자동응답기 사용에 따른 조사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응답기 이용실태와 특성에 대한 조사,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시간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가 실렸다. 우편조사 관한 논문은 기존 115개 연구에서 나타난 응답,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meta analysis)으로 작성되었다. 그밖에 여론 주도자(opinion leader)에 관한 조사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향을 고려한 측정척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논문과 개방형질문지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존 조사를 검토한 논문으로는 General Social Survey,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세 조사에서 미국인의 노동과 여가 시간 증감에 관한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룬 논문과 킨제이와 로퍼(Kinsey and Ropper)가 수행한 성지식 조사의 문제점을 검토한 논문이 실렸다. 특히 이러한 논문은 이미 보고된 조사들의 방법론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더 나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조사연구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1995년

1995년 《계간여론조사》에 실린 논문 28편을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적 주제를 다룬 논문이 14편, 조사방법을 다룬 논문이 14편이었다(<표 2>). 일반적 주제를 다룬 논문들은 정치의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4편, 수년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의 동향을 정리한 연구 4편, 민주주의와 사회갈등을 다룬 연구 3편, 정치광고에 대한 연구 2편, 대통령 직속 여론조사기관의 발달을 다룬 연구가 1편이었다. 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의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는 구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반시민과 엘리트 집단의 정책 선호와 정치적 태도를 비교한 연구,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연구, 미국의 입법부 의원 임기제한에 대한 찬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걸프전 당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인들이 뭉치는 효과(rally effect)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표 2> 내용별 분류 - 1995년 《계간조사연구》

구분	내용	편수
일반적 주제	정치의식 및 태도	4
	민주주의와 사회갈등	3
	정치광고 연구	2
	대통령 직속 여론조사기관의 발달	1
	여론동향	4
	소계	14
조사방법론	질문지 관련	7
	조사수행방법	4
	전화조사 관련 표집방법	2
	조사참여 거부자에 대한 처리	1
	소계	14
	총 논문 편수	28

민주주의와 사회갈등에 관한 논문들은 민주주의가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현재의 미국 정치에 불만을 가진 미국인들이 새로운 정당을 지지하고 이 새로운 정당의 탄생을 민주주의를 재건할 수 있는가, 성별·계급·인종의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정치광고에 관한 연구들은 선거 캠페인에서 TV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와 선거에서 후보들의 이슈차이에 대해 TV 뉴스와 캠페인 광고 중 어디에서 더 많이 알게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론의 동향을 정리한 연구들은 범죄와 처벌,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대중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쟁점, 복지체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다루었다.

이들 연구주제들은 정치사회학적 관심에 바탕을 둔 것이 많다. 이것은 1991년의 《계간조사연구》와 비슷한 경향으로 미국의 정치 영역에서 여론을 중시하는 풍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쟁점에 관한 논문들은 1991년의 LA폭동, 클린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1990년대에 시작된 지역사회범죄통제정책 등 그 당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사회현상을 다루었다.

조사방법을 다룬 연구들은 총 14편이었다. 이 가운데 질문지 관련 논문은 7편이었다. 질문의 순서가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이 3편, 질문의 어법(wording)이나 단서가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이 3편, 수정된 질문지 효과를 평가하는 진단 측정치의 개발과 적용을 다룬 논문이 1편이었다. 이 7편의 논문들은 모두 질문지 구성에 관계된 주제를 다루어서 조사방법론 중 질문지 구성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조사수행 방법에 관한 논문은 모두 4편이 실렸다. 이들은 응답률이나 응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과정 및 절차에 관한 논문이 2편, 투표와 관련된 논문으로 선거전 조사와 출구조사에서 응답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논문 2편이었다. 표집방법을 다룬 논문으로

는 전화번호부에서 누락됨으로써 발생하는 전화조사의 편향(noncoverage bias)에 관한 것이 2편 실렸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특성을 추정하여 조사 결과에 반영하는 연구가 1편 있었다. 이러한 조사방법에 관한 논문들은 《계간여론조사》가 질문지 구성에서부터 조사수행과 조사결과 도출 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해석에 이르기까지 조사연구의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보여준다.

3. 2000년

2000년 《계간여론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전공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조사연구 방법, 여론의 형성 및 표출과정, 정치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중심인 만큼 정치학자, 커뮤니케이션 학자, 사회학자의 참여가 많으며, 그 외에도 조사연구 관련 현업인, 심리학자, 마케팅 전공자, 행정학자의 참여도 많다. 또한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공동연구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계간여론조사》에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 12편(52.2%)과 조사방법을 다룬 논문 11편(47.8%)이 실렸다(<표 3>). 일반적 주제를 다룬 논문들은 일반 연구논문의 성격을 가진 것과 여론동향(the polls-trends)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연구논문의 성격을 가진 논문들은 대체로 여론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치학, 정치 커뮤니케이션, 정치사회학, 사회심리학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치 관련 논문은 3편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정치성 라디오 토크쇼의 청취와 정치적 태도의 관계, 정부에 대한 신뢰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투표 관련 논문은 2편으로, 투표에 대한 서약과 투표참여의 관계를 다룬 논문과 잘 알지 못하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투표행위를 다룬 연구가 있었다. 정치 이외의 사회적 쟁점을 다룬 논문은 2편으로 대중매체에 비친 가난과 10대의 삶에 대한 기대를 다루었다.

여론동향은 주로 사회적 쟁점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조사와 여론의 변화를 기술하고 해설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글들은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연구를 위하여 기초 자료로도 매우 유용하다. 2000년 《계간여론조사》에서 다룬 여론동향에 관한 글은 모두 5편으로 이들의 내용은 1980년대 이후 테러에 대한 태도 및 의견의 변화동향,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선거운동에 대한 여론의 동향, 1980년대와 1990년대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의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 39개국에서 정치지도자의 암살에 대한 여론의 동향, 1992년과 1993년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여론의 변화이다.

<표 3> 내용별 분류 - 2000년 《계간조사연구》

구분	내용	편수
일반적 주제	정치 관련 태도 및 의견	3
	선거 관련	2
	사회적 쟁점	2
	여론동향	5
	소계	12
조사방법론	질문지 관련	4
	전화조사 관련	4
	응답률 관련	1
	가치관 측정 척도	1
	웹서베이 관련	1
	소계	11
총 논문 편수		23

조사방법에 관한 논문들은 전통적으로 조사방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질문지 구성에서부터 응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실험연구에 이르기까지 조사연구의 전 과정을 아주 구체적이고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을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질문지 관련 논문이 4편, 전화조사에 관한 논문이 4편, 응답률 관련 논문이 1편, 척도 구성에 관한 논문 1편, 웹서베이에 대한 논문 1편이 실렸다.

질문에 관한 논문 가운데 2편은 질문의 순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로 하여금 조사의 맥락을 파악하게끔 설계된 앞 질문이 다음 질문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context effect)에 관한 연구 1편과 앞 질문에 따라서 뒤에 오는 질문의 응답이 달라지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1편 있었다. 그 외에 응답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만 경험의 시점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이 1편, 질문의 어법(wording)과 투표지의 유형에 따른 응답의 차이에 관한 연구논문이 1편 실렸다.

전화조사에 관한 논문은 대화형식의 질문/응답과 표준형식을 비교하여 일반적인 전화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질문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를 연구한 논문 1편, 일반적으로 5일 동안 실시하는 전화조사와 6주 동안 실시한 전화조사를 비교한 연구논문 1편, 전화조사에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실험연구 1편, 소비자태도조사(Survey of Consumer Attitudes)에서 전화를 건 횟수와 응답률의 관계에 관한 논문 1편이 있었다. 전화조사 이외에도 일반 면접조사에서 응답률에 관한 연구논문이 1편 있었다. 이 논문은 지레-두각(leverage-salient)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응답에 대한 태도가 조사주체, 질문의 내역, 사전 편지와 선물 등 다양한 측면(지레)에서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두각)는 것이다. 이 이론은 숙련된 면접자는 이런 점을 잘 간파할 수 있으며, 이에 잘 대응함으로써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개인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논문 1편과 새로운 조사기법인 웨브사이트에 관한 논문이 실렸다. 가치관 측정에 관한 논문은 18개의 가치에 대해 서열화(ranking)한 다음 점수를 주는 방법과 각각의 가치에 점수(rating)를 주는 측정방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치관에 대한 측정치는 서열화를 이용한 방법이 더 낫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편 웨브사이트에 관한 논문에는 최근의 동향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III. 분석방법 및 자료별 특성

1. 1991년

1991년에 발표된 32편의 논문들 가운데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한 논문은 25편(78.1%)으로 《계간여론조사》의 발표논문들은 대부분 조사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나머지 7편의 논문들은 기존의 연구문헌에 제시된 결과표를 부분적으로 취합하여 종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자료를 이용한 논문 25편 중 13편은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새로이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편은 기존의 조사자료(이차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기법과 방법론에 관한 논문들은 실험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정치와 선거여론 조사에 관련한 연구들, 특히 장기간에 걸친 태도 변화를 분석하는 시계열적 연구는 기존의 조사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한 조사방법으로는 실험이 6건, 전화조사와 실험을 병행한 경우가 1건, 전화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6건으로, 실험이 설문조사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1991년에 실린 연구논문들은 질문지의 구성과 배열, 응답범주, 척도 등 응답자의 인지구조를 측정하는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심리학적인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아 실험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기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들은 Gallup, NES, GSS, GES 등 전국규모의 조사자료에 기초한 경우가 7건이었으며, 대학의 연구소 등이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4건, 신문의 기사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한 경우가 1건이었다.

1991년 《계간여론조사》에 발표된 논문들이 사용한 통계분석기법들을 살펴보면,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 집단간 차이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요인분석 등 다양한 통계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술통계로 10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이 널리 활용되었다. 이를 통계기법별로 보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 6편, 교차표분석이 6편, ANOVA가 5편, 회귀분석이 5편, 상관분석이 2편, t 검증과 요인분석이 각각 1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표 4>).

<표 4> 분석방법별 분류 - 1991년 《계간여론조사》

분석방법		횟수
기술통계	백분율, 빈도, 평균 등만 제시	10
추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6
	χ^2 검증	6
	ANOVA	5
	회귀분석	5
	상관분석	2
	t 검증	1
	요인분석	1

2. 1995년

1995년에 실린 논문들은 대부분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존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논문이 총 19편(67.9%), 연구를 위해 새로이 조사나 실험을 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한 논문이 9편(32.1%)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1편의 논문은 기존의 조사자료와 새로 실시한 조사자료를 비교하였고, 1편의 논문은 기존의 조사자료와 심층면접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논문이 사용한 통계방법을 보면, 기술통계치만 제시한 논문이 6편이었고, t 검증을 사용한 논문이 4편, 상관분석과 χ^2 검증을 사용한 논문이 3편, 회귀분석·로그선형(log linear)분석·시계열분석을 사용한 논문이 2편이었다. 요인분석, 메타분석, logit 분석, Cochran-Mantel-Haenszel 검사, Wilcoxon Z 검사, Lack-of-fit 검사, Rasch 모형분석, ANOVA를 사용한 논문이 각각 1편씩이었다(<표 5>).

<표 5> 분석방법별 분류 - 1995년 《계간여론조사》

분석방법		횟수
기술통계	백분율, 빈도, 평균 등만 제시	6
추론통계	t 검증	4
	상관분석	3
	χ^2 검증	3
	회귀분석	2
	로그선형분석	2
	시계열분석	2
	요인분석, 메타분석, logit 분석, Wilcoxon Z 검사, Lack-of-fit 검사, Rasch 모형분석, ANOVA, Cochran-Mantel-Haenszel 검사	1

3. 2000년

2000년에 실린 논문은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들 기존자료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설문 조사자료였다. 또한 일부 논문은 기존의 조사에 새로운 문항을 첨가하여 방법론의 차원에서 그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만을 제시한 논문은 6편이었으며, 나머지는 추론통계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추론통계의 통계적 기법들을 살펴보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6편, t 검증이 5편, ANOVA가 3편, 상관분석이 3편, 교차표분석이 3편, 회귀분석이 2편, 시계열분석이 1편에서 사용되었다(<표 6>).

<표 6> 분석방법별 분류 - 2000년 《계간여론조사》

분석방법		횟수
기술통계	백분율, 빈도, 평균 등만 제시	5
추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6
	t 검증	5
	ANOVA	3
	상관분석	3
	χ^2 검증	3
	회귀분석	2
	시계열분석	1

IV. 맺음말

이 글은 《조사연구》에 기고할 논문의 성격과 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미국여론조사연구협회의 공식 학술지인 《계간여론조사》의 성격과 경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경향을 알기 위해 1991년, 1995년, 2000년에 게재된 총 83편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이들의 성격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들을 주된 내용과 분석방법 및 자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내용 면에서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와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논문이 있었다. 일반적 주제를 다룬 논문이 45편(54.2%), 조사방법을 다룬 논문이 38편(45.8%)로 일반적 주제를 다룬 논문이 약간 더 많았다. 일반적 주제를 다룬 논문의 경우 정치의식과 태도, 선거 및 투표 행위에 관한 논문이 27편(60.0%), 그 외 사회적 쟁점을 다룬 논문이 9편(20.0%), 여론의 동향을 다룬 논문이 9편(20.0%)으로 정치의식과 선거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조사방법을 다룬 논문은 질문지 관련 논문이 16편(42.1%), 전화 및 우편조사 관련이 9편(23.7%), 측정 및 척도 구성 관련이 4편(10.5%), 기타 방법론에 관한 논문이 9편(23.7%)로 질문지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다.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기존의 자료와 비교하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자료를 수집할 때 실험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험은 대체로 질문지의 구성과 배열, 응답범주, 척도 구성, 조사기법, 면접법 등에 관한 세밀하고 기술적(technical)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간혹 기존 조사에 문항을 첨가하여 조사방법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석방법은 일반 논문들이 주로 인과적 분석기법들을 사용하는 데 반해 기술통계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통계적 추론을 위한 인과적 분석기법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로지스틱회귀분석, t 검정, 교차표분석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상관분석, 회귀분석, ANOVA도 자주 사용되는 편이었고, 그 외에도 시계열분석이나 요인분석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통계기법은 일반적으로 계량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통계적 기법을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계간여론조사》의 내용별 분석방법 및 자료별 검토 결과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조사연구》는 조사방법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질문의 문항 구성, 척도 구성과 해석,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 면접 방법, 전화조사 및 우편조사의 개선 방안 등 우리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조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연구학회가 다양한 학문들이 모여 설립한 학회란 점에 비추어 조사연구방법 개발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통계학의 이론적 엄밀성과 조사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교류될 경우 《조사연구》는 이론과 현실을 조화하는 방법론의 산실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존 조사연구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조사연구》는 기존 조사연구를 방법론적 검토하고 재해석하여 조사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공식적 통계에 대해서는 원자료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선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적 통계는 국가의 행정과 정책 및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양질의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연구》는 정부의 공식적 통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많은 조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장되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같은 주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는 관행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조사방법 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런 부분에서 《조사연구》는 장기간 지속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그런 자료의 축적된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계간여론조사》에 실린 논문은 통계적으로 첨단 기법이나 복잡한 기법을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조사연구》에 실리는 논문이 사용하는 통계기법에 대해 조금은 자유스러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나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첨단 통계기법에 대한 강박이 있으며, 통계학자들은 새로운 통계학 이론에 대한 강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연구》는 통계이론이나 기법보다는 조사방법과 통계의 이용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계간여론조사》를 개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조사연구》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저자에게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계간여론조사》에 실린 논문들을 직접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논문의 내용, 범위, 성격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계간여론조사》와 같이 《조사연구》가 우리나라 조사방법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AAPOR. 1999. "History of AAPOR." <http://www.aapor.org/about/history.htm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 Division. 2002. "Journal Descrip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http://www.journals.uchicago.edu/POQ/brief.html>